

## AAAAI 2019 학회를 다녀와서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 호흡기알레르기 전임의 김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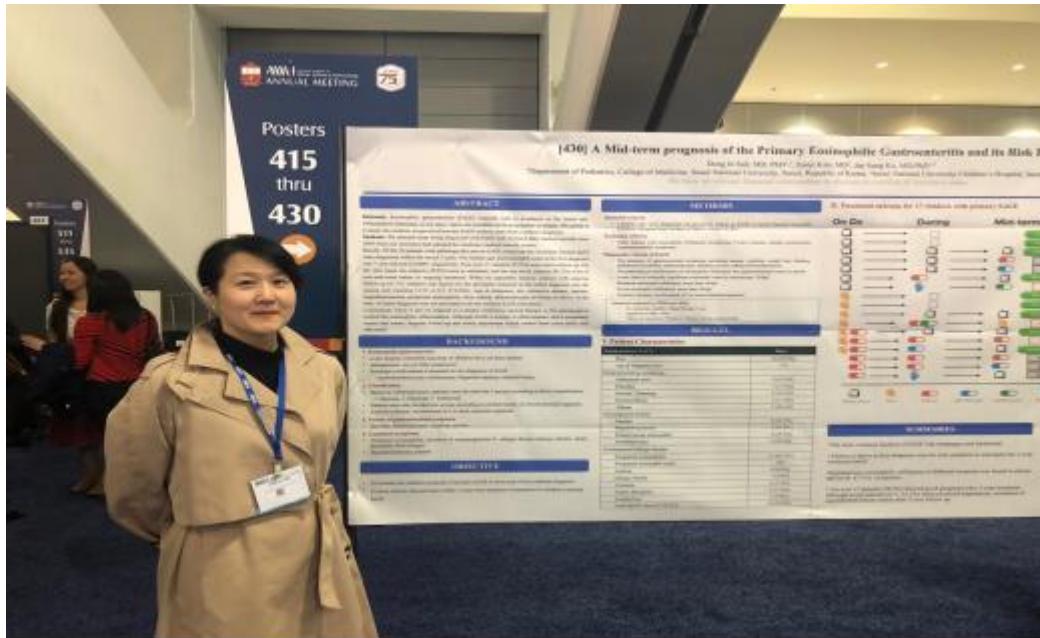
2019년 2월의 AAAAI 학회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습니다. 2/21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첫날은 한국의 봄날 같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도착한 날 한국의 겨울과 대비되는 화창한 날씨를 즐기며 샌프란시스코 유니언 스퀘어의 케이블카 정거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언덕을 넘자마자 보이는 바다를 보며,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바다와 금문교의 풍경을 보며 기라델리 스퀘어, Pier 39 등을 거닐고 Pier 39 의 바다사자들을 보며 봄날 같은 날씨를 즐겼습니다. 이날은 저녁 노을을 보며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해산물 치오피노로 해변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2/22에는 Rhinolaryngoscopy hands-on course에 참석하였습니다. Rhinolaryngoscopy로 해부학적 구조와 질환별 특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실습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Optimal care for food allergy patient로 Plenary lecture가 있었으며, 진단부터 emerging novel therapy까지 각각의 항목에 대한 최신지견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날부터는 날씨가 많이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온도 자체는 한국보다 높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체감온도는 한국만큼 춥게 돌변하였습니다.

2/23에는 morning session으로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소아 알레르기 분과의 선생님들 주최로, 실제로 환자의 말에 동감을 표하는 방식을 통하여 진료효율을 높이는 법, written action plan으로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의 중요성 등에 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서로 환자가 되어 role playing을 하며 직접 체험해보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Plenary lecture로는 health care delivery를 주제로, allergic disease의 일반인들의 잘못 가지고 있는 개념들, 그에 대한 교육, 인터넷을 통한 대중에의 교육 등을 주제로 한 강좌가 있었습니다. 저녁시간에는 immunotherapy에서 cross reactivity를 보이는 성분들을 고려하여 mix 하여 약제를 만드는 법, dose titration을 위한 계산법을 다른 강좌가 열려서, 상용 제품을 이용하는 유럽식과 다르게 미국식으로 mixture를 만들어서 immunotherapy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증례에 대하여 강의를 들어서 흥미로웠습니다. 2/23 밤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chinese new year celebrating march가 유니언스퀘어주변 도로를 통제한채 성대하게 있었으며, 중국계 미국인들의 퍼레이드를 관람하였습니다.

2/24에는, 포스터 session이 있어서 외국의 의사들과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행해오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하여 최근 미국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진단 및 치료약제에 대한 코멘트들을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는 저를 서동인 교수님께서 미국의사들과 토론을 하시며 도와주셔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food challenge를 위한 placebo food 제조를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식품들을 제시하는 부스가 있어서 흥미롭게 참관하였습니다.



2/25 에는 금문교를 넘어 소살리토를 관광하였는데,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정말 추웠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소살리토의 레스토랑에 피신하듯이 뛰어 들어가서 저녁시간을 보냈는데, 임의로 찾아간 레스토랑의 음식들이 너무나 훌륭하여 건너편의 샌프란시스코 만 건너의 구름에 가린 샌프란시스코 풍경을 보며 저녁식사를 혼자서 하며 학회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늦은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세션을 꼽으라고 한다면, 유럽과 미국의 urticaria guideline 에 대한 비교 및 난상 토론이었습니다. anti-IgE monoclonal antibody biologics 사용을 고려하기 전의 스텝들에 대하여 유머와 비판을 섞어서 토론하는 세션이었습니다.

2018년 초봄의 유럽 EAACI 학회 및 2019년 겨울의 미국 AAAAI학회까지 참석하여, 두 학회의 분위기를 비교할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롭고 유익하였습니다.

부족한 제가 전임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도해주시며 훌륭한 학회들에 참석하도록 배려해주신 유영 교수님과 서동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